



## 워라벨(WLB) 및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 분석연구: 유튜브(You Tube)를 통해서

강승우<sup>1</sup> · 김영재<sup>1</sup>

<sup>1</sup>중앙대학교

### A Study on the Keyword Analysis of Warabal (WLB) and Work-life Balance through YouTube

Kang, Seung-woo<sup>1</sup> · Kim, Young-Jae<sup>1</sup>

<sup>1</sup>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study, we intend to analyze keyword networks centered on work-life balance with WLB through the record of videos and comments posted on YouTube, thus establishing a systematic research foundation between work and life. Using keywords "WLB" and "Work and Life Balance " for data collection, 8,681 keywords were used in 497 WLB video clips (December 2012) as of April 2019, and 9,982 keywords were used as work-life themes in 500 images. Using Net Miner 4.3, frequency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keyword community analysis were performed. The main interest keywords and research topics of WLB's analysis and work-life videos first created keywords of happiness, society, exercise, individual, work, travel, hobby, company, culture, need, time and work. Second, the keywords shown through the analysis of "work and life" showed high importance by keywords such as work, time, balance, work, happiness, charging, life, health and effectiveness. Thus, in order to solve systemic problems and pursue happiness through proper tasks and financial rewards,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practical measures to find out what Koreans think the WLB keyword has. Subsequent studies will require in-depth and advanced studies in platform configuration through prior studies through WLB keywords and paper draft analysis.

**Key words :** youtube, keyword network analysis, degree centrality, cluster analysis, work and life balance, WLB

주요어 : 유튜브, 키워드네트워크분석, 중심성분석, 군집분석,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ung Jae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Republic of Korea.

E-mail: yjkim@cau.ac.kr

Received: May, 3, 2019 Revised: June, 26, 2019 Accepted: June, 27, 201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장인의 주 5일 근무로 인해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하였고, 웰빙(Well-being)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가 및 문화활동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윤홍권, 권혁인, 2018). 이는 의학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현대인의 수명이 100세에 달하는 '호머 헌드레드' 시대를 맞이하였고(김형훈, 이지연 2018),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탄력 근로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생활을 위해 정책개발 및 법률적 개정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손영미, 김정운, 정열, 2011; 홍수민, 2018).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은 퇴근 후, 현대인의 시간·주의·관심을 심리적·신체적 사용을 통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며(Clark, 2000), 자신의 삶(whole life)에 대한 만족감, 긍정적 정서 등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Greenhaus, Collins & Shaw, 2003; Tausing & Fenwick, 2001).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삶의 질, 웰빙을 이야기할 때, 워라벨을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2017)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 정도는 38개국 중 35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일과 삶의 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015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7).

현대인들은 부족한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워라벨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 미디어 활용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고 있다(이가영, 2018). 이에 개인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 장소, 비용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를 누리고 있다(유리나, 2018). 이렇게 UCC는 하나의 문화 장르가 되었고, 새로운 정보 기능을 통해 학습 유튜브 사용하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공유플랫폼으로서 워라벨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는 시청자가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특성에 따라 탈대중화, 시·공간적 제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송정은, 장원호, 2013). 현재 대한민국의 모바일 유튜브는 전 세대에 걸쳐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시청애플리케이션으로 거듭나고 있다(김민수, 2018).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정보는 이용자들의 인식변화에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선행 연구인 네트워크 분석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병언, 임규건, 2015; 홍주현, 2018; 이귀옥, 손승혜, 정은정, 2018). 현시대의 연구방법 중 일반교육학이나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감소시켜 객관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나랑, 최형림, 이태현, 2018). 이처럼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연구키워드를 중심으로 단어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 Leydesdorff, 2004; 권미경, 2014). 이에 본 연구는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유튜브에 있는 워라벨(W&B)과 일과 삶의 균형 동영상의 제목과 댓글형태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유튜브 콘텐츠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방법

#### 1-1) 연구자료수집

본 연구는 유튜브(YouTube)의 콘텐츠 제목과 작성된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키

워드선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3인과 함께 선정하였다. 자료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위라벨’과 ‘일과 삶의 균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 분석 시 노드의 수에 따라 다수의 노드는 시각화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키워드에서 중요한 네트워크 판단되는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김보경, 김미경, 2015).

자료 분석 기간은 위라벨과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가 증가한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7년간을 연구 대상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위라벨’동영상의 497편에서 사용된 키워드 8,681개(노드)가 도출되었고, ‘일과 삶의 균형’ 동영상의 500편에서 사용된 키워드는 9,982개(노드)가 산출되었다.

### 1-2)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교육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이 진행되고(양근우, 2017), 연결망 분석은 주로 논문 키워드를 통해 분석되며, 선행 논문에서 사용된 중요한 개념들을 선별, 나열하여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는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용학, 유소영, 2013). 이에 본 연구는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서 사용된 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Net Miner 4.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연결망 분석방법 중, 연결 중앙성(degree centrality)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유튜브 콘텐츠 중 ‘위라벨’과 ‘일과 삶의 균형’ 텍스트 분석을 위해 해당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어를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본래의 의미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정제하였다. 정제작업은 선행 연구인 정철영 외(2015)의 연구 방법에 따라 교정, 통제, 제거작업을 거쳤다. 첫째, 교정작업은 키워드 분석으로 도출된 단어의 띄어쓰기, 품사, 단·복수 등을 정리하였

다. 둘째, 통제작업을 통해 유사한 의미로 도출된 유사어와 동의어를 정리하였으며, 상위단어에 하위단어를 통합하였다. 셋째, 제거작업은 영어로 도출된 키워드를 제거하여 국문으로 변환 및 통합하였고,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 삭제시켰다.

## III. 결과

### 1. 위라벨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그림 1]과 같이 전체 ‘위라벨’ 동영상의 497편에서 사용된 키워드 수는 8,681개(노드)가 도출되었고, 키워드별 최소 1번에서 많게는 882번 사용되었다. ‘위라벨’에서 주로 사용되는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에서 50번 이상 사용된 192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키워드 분석결과, ‘위라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일’(923회)과 ‘위라벨’(882회)로, 핵심단어를 주제어에 직접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시간’(671회), ‘회사’(424회), ‘생각’(422회), ‘삶’(377회), ‘돈’(331회), ‘연봉’(282회), ‘근무’(255회), ‘직장’(214회), ‘퇴근’(165회), ‘행복’(159회), ‘문화’(136회) 등의 키워드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1. 위라벨의 주요 키워드





그림 4. 일과 삶의 균형 주요 키워드

간'(833회)으로, 핵심단어를 주제어에 직접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람'(692회), '균형'(394회), '행복'(358회), '기업'(284회), '돈'(281회), '문제'(253회), '하루'(248회), '사회'(244회), '추구'(233회), '인생'(215회), '건강'(203회) 등의 검색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 2-1)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의 중앙성 분석

'일과 삶의 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된 키워드 간의 위치와 네트워크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성 분석을 하였다. 연결 중앙성은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연결성을 의미하며, 중앙성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키워드구조의 중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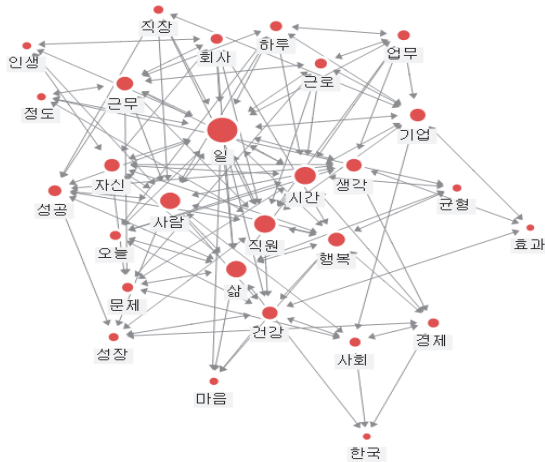


그림 5. 일과 삶의 균형 연결중앙성 분석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연결 중앙성 점수의 분석결과(M=3.67, S.D=7.207) 중앙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삶'(8.803), '일'(6.051), '시간'(3.683), '균형'(3.162), '근로'(1.572), '행복'(1.111), '충전'(1.000), '삶'(0.863), '건강'(0.666), '효과'(0.598) 순으로 중앙성이 나타났다. 또한, '노동', '원칙', '스타일', '문화', '교육' 등의 검색어가 나타났다.

### 2-2)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의 클러스터 분석

다음은 '일과 삶의 균형' 클러스터 분석결과이다. 클러스터 분석은 주제연구의 하위 연구영역 간 군집을 형성시켜, 주요 연구 주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클러스터 분석결과 [그림 6]과 같이 '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업무', '하루', '회사', '근로' 등과 같은 관련된 키워드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즉, '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있어 유튜브에서는 일은 단순한 삶에 있어서 채워지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삶'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건강', '문화',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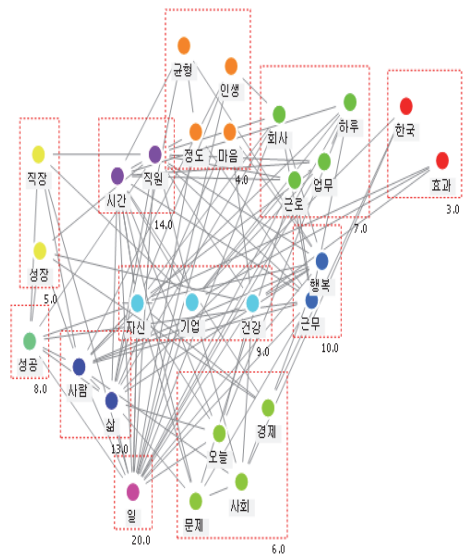


그림 6.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클러스터 분석

‘일상’, ‘생활’, ‘하루’ 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군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아직 삶이 보여주는 부분은 단순하게 하루에 대한 일정으로 부분에 채워지는 시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키워드 ‘워라벨’과 ‘일과 삶의 균형’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여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현대인들이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에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워라벨’ 주요 키워드 분석의 결과 행복, 사회, 운동, 개인, 직장, 공부, 여행, 취미, 회사, 문화, 필요, 시간, 퇴근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는 30대와 40대 기혼 직장인은 직업 경력을 통해 성공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현실적인 일과 삶의 부분에 우선순위를 둔 문은영과 서영주(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균형적인 삶에 있어 직장과 관련된 키워드가 우선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워라벨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나타내며, 개개인이 만든 기준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키워드의 중앙성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현재 ‘워라벨’을 나타내는 것은 여가적인 의미의 단어가 워라벨 세대가 나타내는 ‘여행’, ‘취미’, ‘문화’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 일정 부분으로 민경선(2018)의 연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조건, 시간에 대한 불균형 상황에서 행복추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여가활동에 관한 관심보다는 직장 인생에 관련된 키워드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일반인들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찾는 내용은 여가활동적인 부분보다는 직장에 관련된 내용이 많거나, 일과 퇴근 시에 사용되는 콘텐츠의 시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과 성장 균형은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나타낸다는 김명옥(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여가활동을 통해 워라벨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과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키워드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군집을 형성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 운동, 야근, 생활, 직장 등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관련된 군집은 직장, 생활, 퇴근, 근무, 주말, 연봉 등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즉, 기성세대에서 나타나는 TV 시청 시간이 높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나타난 장시간 노동과 일 중독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가활동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조미라, 2016). 이는 과거의 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직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과 삶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역할과부하와 일-가정균형 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였던 김현근, 안성익 및 이종완(2018)은 가정에 대해서도 조직의 구성원이 관심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측면의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직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워라벨에 대한 균형이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워라벨을 위한 다양한 여가학의 관점에서 지원이 현대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기준점이 필요하며, 기준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 일과 여가활동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 ‘일과 삶의 균형’의 주요 키워드 분석의 결과 시간, 사람, 균형, 행복, 기업, 돈, 문제, 하루, 사회, 추구, 인생, 건강 등의 검색어가 도출되었다. 이는 Gropel & Kuhl(2009)의 연구에서도 일과 생활의 조화가 안녕감에 영향을 나타내며, 행복감 중 자기수용은 심리

적 만족과 다르게 자신만의 가치를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인지한 일-여가, 일-삶의 전반의 균형(이병찬, 2016)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과 생활에 균형에 대한 적절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의 대책과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 번째로 나타난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 중앙성 분석을 통해 나타난 키워드는 일, 시간, 균형, 근로, 행복, 충전, 삶, 건강, 효과 등의 키워드가 중앙성을 높게 나타냈다. 이는 손헌일과 권혁기(2018)의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과 삶의 균형이 가지는 차원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일을 통해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개인의 여가활동 보장을 통해 일이 가져다주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일과 삶의 균형’이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직업에서 나타나는 척박한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일과 삶, 직업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세대의 직장인이 추구하는 여가에 대한 균형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위한 사회 인식이 변화를 통해 현대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회사와 정부에서 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클러스터 분석결과, ‘일’과 관련된 키워드는 업무, 기간, 일상, 근무, 생활로 나타났고, ‘삶’에 관련된 키워드는 건강, 문화, 행복, 일상, 하루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Rajendran & Theiler(2012)의 선행 연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과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김은희와 김철원(2017)의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사회계층이 가지는 행복감의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의 결과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메시지가 가지는 일과 삶의 균형이 보편적 가치로 형성되면서, 현대인들이 삶의 목표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일이 가지는 직무적인 요인과 삶에서 나타나는 건강과 행복, 생활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선행 연구에서 원하는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해 일에서 분리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개인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만족의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자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중 키워드분석방법을 통해서 ‘위라벨’과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 분석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위라벨’ 키워드 자료 497편의 동영상 중 8,681개의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일과 삶의 균형’ 500편 중 9,982개의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키워드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정도, 클러스터 분석 등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여 ‘위라벨’과 ‘일과 삶의 균형’ 동영상의 주요 관심 키워드와 연구에서 중요시되는 키워드 클러스터를 분석하였다.

첫째, ‘위라벨’의 키워드 분석결과 시간, 회사, 연봉, 행복, 사회 등이 중요키워드였다. 분석된 위라벨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클러스터 분석 결과 위라벨에 관련된 군집은 행복, 운동, 야근,

생활, 직장 등의 키워드로 형성되었고 시간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직장, 생활, 퇴근, 근무, 주말, 연봉 등으로 군집이 형성되었다. 즉, 워라벨의 키워드가 나타내는 사회현상은 직장에서 가지는 직무에 대한 균형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대인들의 워라벨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워라벨 키워드가 가지는 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규명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 분석결과 시간, 사람, 균형, 행복, 기업, 돈, 문제, 하루, 사회, 추구, 인생, 건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분석된 일과 삶의 균형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클러스터 분석결과 일에 관련된 군집은 업무, 시간, 일상, 근무, 생활 등으로 형성되었고, 삶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건강, 문화, 행복, 일상 등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일과 삶의 균형은 적절한 직무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의미를 알 수 있었고, 워라벨을 위한 플랫폼 구성에 활용될 수 있는 키워드를 구성하였다. 또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워라벨과 단어적인 공통성에 있어 중복되는 내용과 제공된 일부 키워드만 가지고 분석됨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영문 분석과 실제 신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해외의 워라벨 키워드 분석을 통해 확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분석자료와 연구자가 선택한 키워드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분석과 논문초록을 통해 워라벨 키워드를 통해 심층적이고 플랫폼 구성에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는 나와 있는 워라벨과 일과 삶의 논문을 대상으로 영문, 형태소분석 등을 이용해 미래에 꼭 사용되어야 하는 워라벨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요소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권미경(201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연구동향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 개발대학원.
- 김나랑, 최형림, 이태현(2018).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국내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35-45.
- 김명옥(2015). 일과 생활의 균형 (WLB) 이 비서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30, 405-443.
- 김민수(2018.12.11). 유튜브 시청률 최고...전 연령대 사로잡았다. 노컷뉴스.
- 김보경, 김미경(2015). 빅데이터를 활용한 템플스테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블로그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9(5), 27-40.
- 김용학, 유소영(2013). 한일 비교 연구의 비교: 인문사회 분야 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4(1), 25-45.
- 김은희, 김철원(2017).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사회적 계층이 주관적 행복감. *관광연구*, 32(7), 1~24.
- 김현근, 안성익, 이종완(2018). 역할과부하와 일-가정균형만족의 관계에서 가정 친화적 조직지원인식과 가정 친화적 상사지원인식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5(4), 19-40.



- 김형훈, 이지연(2018). 노인의 여가활동과 우울의 관계: 여가인식의 조절효과. *한국레저사 이언스학회지*, 9(1), 13-21.
- 문은영, 서영주(2011). 서울시 30, 40 대 자녀양육 남성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4.
- 민경선(2018). 워라벨 세대의 여가와 삶의 만족도.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377-388.
- 박병언, 임규건(2015). 일반영향요인과 댓글기반 콘텐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합한 유튜브(Youtube)상의 콘텐츠 확산 영향요인 연구. *지능정보연구*, 21(3), 19-36.
- 손영미, 김정은, 정열(2011). 중앙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직 및 개인변인의 영향력 검증 연구. *여가학연구*, 9(1), 101-131.
- 손헌일, 권혁기(2018).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3(5), 77-87.
- 송정은, 장원호(2013). 유튜브(You Tube) 이용자들의 참여에 따른 한류의 확산. *지능정보연구*, 21(3), 19-36.
- 양근우(2017). SNA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상정보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통상정보연구*, 19(1), 23-42.
- 유리나(2018.11.05). 유튜브에서 이틀에 한 번, 러닝 콘텐츠 시청한다. 디지털 마케팅뉴스.
- 윤홍권, 권혁인(2018). 직장인의 소셜댄스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문화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1), 1-13.
- 이가영(2018). 유튜브 일상 콘텐츠에 대한 밀착된 시청이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의사사회 상호작용 및 사회적 실재감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귀옥, 손승혜, 정은정(2018). 유튜브를 통한 식품 관련 가짜의학정보의 확산에 관한 사례연구: '귀 통증에 양파' 뉴스의 네트워크분석.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7(2), 97-129.
- 이병찬(2016).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일과 삶의 균형(WLB)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5(5), 549-557.
- 정철영, 주홍석, 조영아, 전지민, 정지은(2015).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운영 우수사례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3), 117-137.
- 조미라(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1999~2009년 성별 여가시간 양의 변화 및 불평등 요인분석. *한국인구학*, 39(1), 29-57.
- 홍수민(2018.03.23).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중앙일보.
- 홍주현(2018).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생리대 발암물질 이슈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9(4), 15-26.
-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 Grope, P., Kuhl, J. (2009). Work-life balanc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need fulfill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0(2), 365-375.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 Park, H. W., & Leydesdorff, L. (2004). Understanding the KrKwic: A computer program for the analysis of Korean tex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 Rajendran, Bell, A. S., Theiler, S. D. (2012). Job stress, well-being, work-life balance and work-life

conflict among Australian academics.  
*E-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25-37.  
Tausig, M., & Fenwick, R. (2001). Unbinding

time: Alternate work schedules and  
work-life balanc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2), 101-119.